

에어쇼·오징어 게임…세대 통합 축제의 장 ‘보성군민의 날’

내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개막식, 공군 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야의 놀이공원 등 체험 다채…K팝스타·트로트 등 가수들 공연도 풍성

‘하늘에선 짜릿한 에어쇼, 땅에선 전국 최대 규모의 오징어 게임’
오는 2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보성군민의 날의 다채로운 행사가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대가 만나고, 마음이 머무는 축제의 장’이라는 주제로 올해 48회째를 맞이한 보성군민의 날은 기존 형식을 탈피, 어린이·청소년·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로 기획됐다.
프로그램 구성과 공간 배치를 전면 재구성해 세대 간 소통과 참여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막식에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하늘을 수놓는 짜릿한 에어쇼를 선보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전 군민 오징어게임,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의 놀이공원,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또한 시원한 물놀이와 축하공연이 결합된 워터페스타에는 인기 아티스트 하하&스컬, 효린, 호미들, XLOV가 출연해 봄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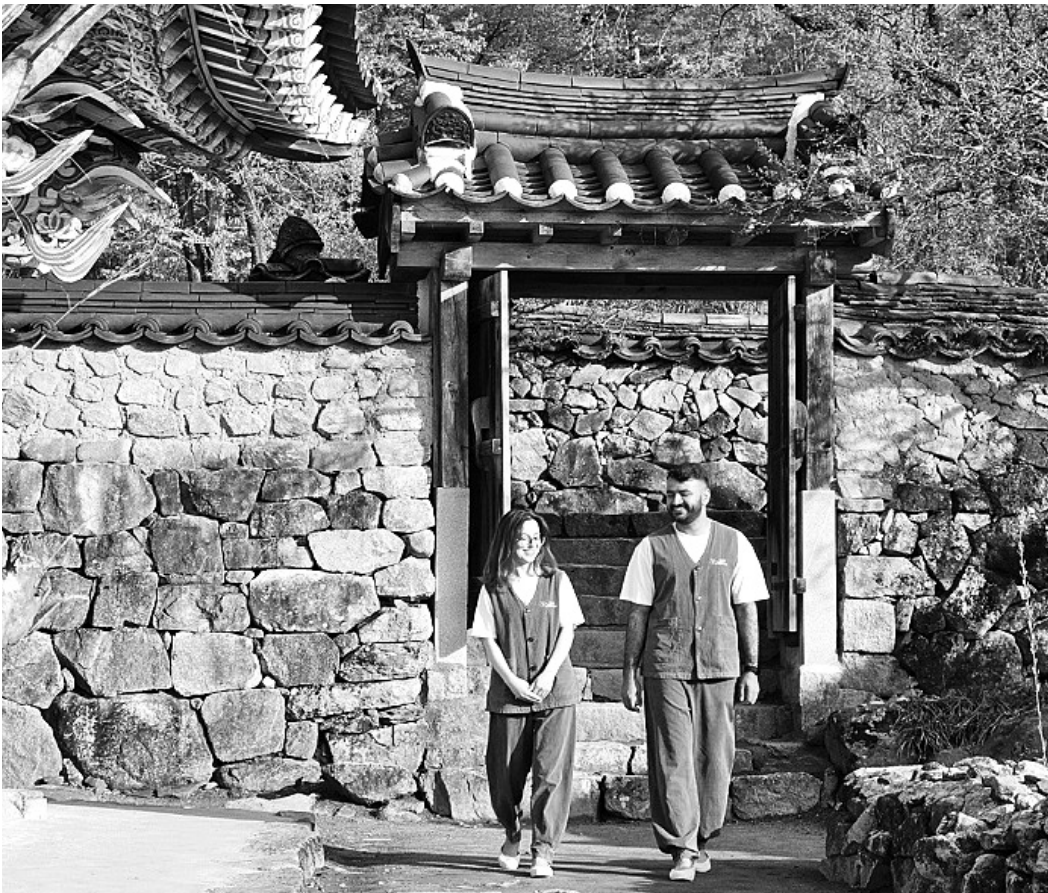
줄 예정이다.
이어지는 오후 축하공연에는 나태주·박서진·미스김 등이 무대에 올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두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한다.
이날 행사 편의를 위해 공설운동장 외부는 전면 주차장으로 운영되며, 내부에는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존, 길거리 씨름장, 체육경기존, 놀이공원 등 다채로운 테마 공간이 마련된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세대 간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다.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보성의 특별한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48회 보성군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차밭 체험, 전통 다례 시연, 세계 차(茶) 문화 교류행사 등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2일 열리는 보성군민의 날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진다. 지난 2023년 보성세계 차엑스포 당시 블랙이글스 에어쇼.

해외 유학생, 천년고찰에서 특별한 1박2일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활용사업’…선암사에서 K-템플스테이



순천시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유산 활용사업이 오는 10일부터 4차례 걸쳐 선암사에서 열린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세계유산 활용사업이 천년고찰 선암사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다국어로 만나는 천년고찰 세계유산 선암사’라는 주제의 K-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선암사의 역사문화적 가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사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해설사가 영어로 한국의 산사 문화와 선암사에 대해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사찰 문화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대웅전에서 직접 예불을 보는 등 1박2일 동안 한국의 산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총 4회(5월 10~11일, 11~12일, 17~18일, 18~19일)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지난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이며, 회차별로 12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세계유산 선암사 K-템플스테이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이 증정되며, 사진 콘테스트를 통해 한국의 산사문화를 가장 낭만 있게 체험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제공된다.
참가자 접수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61-721-6161) 또는 카카오톡 채널 ‘Seonamsa Temple Stay’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매실퇴비, 생육 촉진·병해충 억제 효과

광양시, 학술대회서 성과 발표…내년부터 2년간 토양개선 시범사업

광양시가 지난 4월 23일부터 3일간 여수에서 열린 한국식물병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매실퇴비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발표에서 자체 발굴한 토착미생물(Bacillus velezensis GY-15)을 활용해 매실퇴비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작물 생육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시가 발굴한 토착미생물은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을 억제하는 복합 기능성 균주(식물병방제제)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특허 등록(등록번호 10-2718012)을 완료했다.
특히 이 토착미생물을 접목해 개발한 광양시 매실퇴비는 버려지는 매실을 활용해 만든 기능성 퇴비로, 광양시 주요 재배작물인 양상추와 애호박 시설

재배단지에서 실증시험을 추진한 결과 농가소득이 17%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기능성 미생물 매실퇴비를 활용한 작물재배 기술은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사업인 2026년도 신기술 시범사업의 신규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전국 시설채소 재배단지(80ha 규모)를 대상으로 매실 시설재배 토양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매실퇴비 제품화를 위해 상표(‘매하리’) 및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비료생산업 등록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등록 또한 완료해 현재 기술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매실퇴비와 관련된 사항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1-797-3560)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 점암 대춘별신제’ 전남도 무형유산 지정 예고

특별 신을 모시는 마을제…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고흥 점암 대춘별신제’가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고흥 점암 대춘별신제’는 고흥군 점암면 대룡리 대춘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특별한 신을 모시고 지내는 마을제이다. 이달 23일까지 각 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라남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무형유산(無形遺産)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고흥 점암 대춘별신제는 연초 정월 보름에 진행되며, 정월 초사흘날부터 마당뽕기를 하고 열나흘 날 별신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남도문화제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춘별신제 상쇠 계보는 박석일(朴昔日, 1840년생), 신명휴(申明休, 1906년생), 이광열(李光熱, 1929년생), 신경식(申敬植, 1946년생)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마을에서 유래되고 있던 별신제를 당골출신인 박석일이 발전시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대춘마을 답을 경작하거나 마을의 ‘창고지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박석일이 신명휴에게 예능을 전수했고, 현재는 신경식 상쇠가 그 맥을

잇고 있다. 또한, 박석일은 인근 점암면 사동마을로 이주해 최동신 등에게도 예능을 전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춘별신제는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제례 절차가 명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적인 마을 제사와 달리, 신이 마을에 좌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별신제 때 신을 모셔 와 좌정시킨 후, 제례를 마치고 다시 신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혼맛이 절차인 청신, 제사를 모시는 오신, 보내드리는 송신의 순으로 순서가 명확하다. 또한, 별신제의 제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농악으로 행하기 때문에 농악역시 절차와 가락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kwangju.co.kr

‘보증금 0원’ 여수 청년임대주택 인기 폭발

올해 25호 대상 신청자 경쟁률 18.3대 1…22일 입주자 공개 추첨

‘임대보증금 0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이 모집 경쟁률 18.3대1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청년임대주택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299명) 보다 50% 늘어난 459명이나 몰렸다고 밝혔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여수시가 전세 계약한 공실 임대주택을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공급해 경제적 자

립을 돕는 정책으로, 문수동에 소재한 부영9차아파트 중 20평형 공공임대아파트다.
시가 올해 공급할 청년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우선공급’ 1호, ‘신혼부부’ 3호, ‘여수시민(청년)’ 16호, ‘전임예정(청년)’ 5호으로 총 25호 대상이며, 모집 결과 우선공급 3대1, 신혼부부 6.3대1, 여수시민(청년) 24.8대1, 전임예정(청년) 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유형을 신설하고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내 결혼 예정인 가구도 예상장 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유자격자에 한해 오는 5월 22일 여수문화홀에서 현장 공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6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적극행정의 산물”이라며 “오는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 200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스마트 6차 산업 고도화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용역 착수

고흥군이 고흥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와 스마트 6차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발판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흥군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흥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고흥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농·수·축·관광 산업 융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흥군이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친환경 수산 양식 단지 ▲종자단지 ▲고령한 간척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등의 신속한 추진과 실행 기반 확보로 활발한 민간자본 투자유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은 이번 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청년 창농 유도 등 다각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탄소 저감 등 미래형 농업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kwangju.co.kr

순천경찰-녹색어머니회 ‘교통 안전’ 다짐



2025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순천경찰서가 최근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새롭게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운영진과 간담회(사진)를 개최하여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등굣길 통학지도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새로 구성된 녹색어머니

회 운영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봉사활동에 대한 추진방향과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지원 및 등·하교길 교통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대원 경찰서장은 “그간 학교주변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여 온 녹색어머니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행복인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순천경찰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안공동체 역할을 당부하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